



군산시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서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시'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민 200여 명의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했다.

군산시, 청년 귀농 스토리에 도시민 '호응'

귀농귀촌홍보전 200여명 상담

군산시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군산 농업 알리기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군산시는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시'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민 200여 명의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시는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는 수

도권 거주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귀농 귀촌 지원정책, 교육, 실습 프로그램 안내 등 심층 상담을 벌였다.

또한, 청년 귀농인들의 귀농 스토리와 본인들만의 정착 노하우를 들어볼 기회를 제공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바나나를 재배하는 대야면 청년 농민, 구아바를 재배해 음료로 가공하는 서수면 후계농업인, 보리를 재배해 직접 수제 맥주를 가공하는 회현면 귀농 청년 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행사장에 직접 나와 소개함으로써 스포트라이트를 한몸

에 받았다.

군산시 농촌지원과 김미정 과장은 "농촌 인구유입을 위해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귀농지원,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활동 등 변화하는 귀농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귀농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젊은 청년농 유치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지원 시책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산시 귀농귀촌 인구는 505세대 904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군산시 농업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군산=정준모 기자



군산시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진행된 '전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군산농업 알리기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시,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참가 '큰 호응'

군산시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진행된 '전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군산농업 알리기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 시는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시'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민 200여명의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군산시 귀농귀촌 지원정책, 교육, 실습 프로그램 안내 등 심층상담뿐만 아니라 시 청년 귀농인들의 귀농 스토리와 본인들만의 정착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또 바나나 재배 대야면 청년 농업인, 구아바 재배·가공 서수면 후계 농업인, 보리 재배 수제맥주 가공 회현면 청년 농업인 등이 각각 생산한 제품을 직접 소개하면서 방문객들이 군산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재미가

지 더해져 인기를 끌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젊은 청년 농 유치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각종 맞춤형 귀농 지원사업 등 귀농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귀농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산시 귀농귀촌 인구는 505세대 904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저밀도사회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김종준기자



군산,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참가

1:1 군산 맞춤형 정보 제공

군산시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2023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군산 농업 알리기로 호응을 얻었다.<사진>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시는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시'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민 200여 명의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거주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군산시 귀

농귀촌 지원정책, 교육, 실습 프로그램 안내 등의 심층 상담뿐만 아니라 시 청년 귀농인들의 귀농 스토리와 본인들만의 정착 노하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바나나를 재배하는 대야면 청년 농업인, 구아바를 재배해 음료로 가공하는 서수면 후계농업인, 보리를 재배, 수제 맥주를 가공하는 회현면 귀농 청년 농가가 본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행사장에 직접 나와 소개하면서, 방문객들이 군산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재미까지 더해져 인기를 끌었다.

/군산=박수현 기자

군산시,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참가

군산시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2023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군산 농업 알리기에 힘썼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것으로, 시는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시'라는 슬로건으로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거주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군산시 귀농귀촌 지원정책, 교육, 실습 프로

그램 안내 등의 심층 상담뿐만 아니라 시 청년 귀농인들의 귀농 스토리와 본인들만의 정착 노하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마련했다. 실제로 바나나를 재배하는 대야면 청년 농업인과 구아바를 재배해 음료로 가공하는 서수면 후계농업인, 보리를 재배한 후 수제 맥주를 가공하는 회현면 귀농 청년 농가가 본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행사장에 직접 나와 소개해 방문객들이 군산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재미까지 더해져 인기를 끌었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 귀농귀촌 성공 비법 전수 '엄지척'

서울서 열린 전북도 홍보전
지원 정책과 실습 심층 상담
청년농 정착기 생생 소개도

군산시가 '2023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서 귀촌 귀농을 준비하는 상담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군산시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2023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군산 농업 알리기에 나섰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군산시는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시'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민 200여 명의 맞춤형 귀농 귀촌 상담을 진행했다.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거주 예비 귀농 귀촌인에게 군



군산시가 서울에서 열린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산시 귀농 귀촌 지원정책, 교육, 실습 프로그램 안내 등의 심층 상담뿐만 아니라 군산시 청년 귀농인들의 귀농 이야기와 본인들만의 정착 비결을 들어보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바나나를 재배하는 대야면 청년 농업인, 구아바를 재배해 음료로

가공하는 서수면 후계농업인, 보리를 재배, 수제 맥주를 가공하는 회현면 귀농 청년 농가가 본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행사장에 직접 나와 소개하면서, 방문객들이 군산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재미까지 더해져 인기를 끌었다.

/군산=강경창기자

군산, 전북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참가 '큰 호응'

군산시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2023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군산 농업알리기호 호응을 얻었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시는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시'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민 200여명의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거주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군산시 귀농귀촌 지원정책, 교육, 실습 프로그램 안내 등의 심층 상담뿐만 아니라 시 청년 귀농인들의 귀농 스토리와 본인들만의 정착 노하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획의 장을 마련했다.

바나나를 재배하는 대야면 청년 농업인, 구아바를 재배해 음료로 가공하는 서수면 후계농업인, 보리를 재배, 수제 맥주를 가공하는 회현면 귀농 청년 농가가 본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행사장에 직접 소개하면서, 방문객들이 군산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재미까지 더해져 인기를 끌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맞춤형 귀농지원,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활동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귀농 정책을 펼치겠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지원 시책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송기문 기자 jbskm@naver.com



군산시,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참가

군산시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2023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군산 농업 알리기호 호응을 얻었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시는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시'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민 200여 명의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거주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군산시 귀농귀촌 지원정책, 교육, 실습 프로그램 안내 등의 심층 상담뿐만 아니라 시 청년 귀농인들의 귀농 스토리와 본인들만의 정착 노하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획의 장을 마련했다.

바나나를 재배하는 대야면 청년 농업인, 구아바를 재배해 음료로 가공하는 서수면 후계농업인, 보리를 재배, 수제 맥주를 가공하는 회현면 귀농 청년 농가가 본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행사장에 직접 나와 소개하면서, 방문객들이 군산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재미까지 더해져 인기를 끌었다. /백용규 기자

군산시, 전라북도 귀농귀촌 홍보 활동 참가

군산시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군산 농업 알리기에 나섰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시는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시’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민 200여 명의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거주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군산시 귀농귀촌 지원정책, 교육, 실습 프로그램 안내 등의 심층 상담뿐만 아니라 시 청년 귀농인 귀농 스토리와 본인들만의 정착 노하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바나나를 재배하는 대야면 청년 농업인, 구아바를 재배해 음료로 가공하는 서수면 후계농업인, 보리를 재배, 수제 맥주를 가공하는 회현면 귀농 청년 농가가 본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행사장에 직접 나와 소개하면서 방문객들이 군산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재미까지 더해져 인기를 끌었다.

김미정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군산시 인구유입을 위해 변화하는 귀농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귀농 정책을 펼치겠다”며 “젊은 청년농 유치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지원 시책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